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06 호

2019 년 6 월 15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고위험 분쟁지역에서의 책임있는 비즈니스 전략 간담회 (7/5)
2. K-SDGs 분야별 집중포럼 (7/3 - 7/4)
3. <대전·세종>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 (7/25)
4. 제1기 UNGC CSR Academy 3차 교육 결과 (6/14)
5.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기업의 SDGs 통합 보고: 실행 가이드> 국내 발간

■ 본부 소식

1. UNGC, '글로벌 목표, 해양 기회 보고서(Global Goals, Ocean Opportunities)' 발간
2. [Executive Update] 비즈니스 기회가 되는 해양 환경 보전: 기업의 긴급한 행동이 필요하다

■ SDGs 소식

1.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목표 15 – 육상 생태계 보호
2. [SDGs 솔루션] 100% 식물 기반 음료 포장재
3. [Goal 15, 11, 13, 5]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유한킴벌리

■ UNGC 회원 뉴스

1. KB국민은행, 여성리더 20% 이상 확대키로
2. 한국남동발전, 기후변화 국제 컨퍼런스에서 잇단 성과
3. 인천공항공사, '2019 한국윤리경영대상' 수상

■ CSR 뉴스

1. 남성 10명 중 4명 “여성 임금수준 불평등...취업승진에 불리”
2. 역대 최저금리에 15억불 외평채 발행...첫 정부발행 지속가능채권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신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 발행일 변경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소식

1. 고위험 분쟁지역에서의 책임있는 비즈니스 전략 간담회 (7/5)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SDGs 목표 16번
평화, 정의 및 포용적 제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치·사회적 불안정 및 분쟁이 지속되고 폭력,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글로벌 목표 달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정적인 기업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많은 기업들이 취약·분쟁 및 고위험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재정, 환경, 사회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지원하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세계 기업 및 투자자들은 고위험 지역의 환경에서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동찰력을 축적해 왔습니다. 본 간담회에서는 취약·분쟁국 진출에 있어 책임있는 경영,
세계은행 사업 사례 및 UNGC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B4P)를 통해
평화를 위한 기업활동 참여방안을 논할 예정입니다. 본 간담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9년 7월 5일(금) 14:30 - 16:3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1 (B2F)

주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대상: 고위험 분쟁지역 진출 관심 기업, UNGC 기업·기관 대표 및 실무진 (25인)

***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선착순 마감입니다**

프로그램

시 간	프 로 그 램
14:30 - 14:40	10' 인사말 -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14:40 - 15:20	40' 취약·분쟁국가에서의 책임있는 비즈니스 및 세계은행 협력 사업 - 정다운,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선임담당관
15:20 - 15:50	30'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B4P) 및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위한 이행 지침 -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
15:50 - 16:30	40' 토론 및 질의응답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 (Business for Peace) 플랫폼이란?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Business for Peace)'는 기업이 직장, 시장,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민간부문의 활동을 증대하고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의 분쟁 또는 고위험 지역에서 기업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원칙에 따라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세계은행그룹 FCV (Fragility, Conflict and Violence) 부서 소개

2009년부터 기획재정부와 신탁기금 협력을 시작했으며 2018년 하반기에 한국사무소 설립되었습니다. 분쟁, 취약성, 폭력 등 고위험 지역의 개발지원을 하며, 주로 FCV 관련 데이터 분석, 정치경제 상황 모니터링 및 연구 분석, FCV 국가 전략 수립 및 정책 제언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NGO, 연구단체, 기업 등과의 협력 확대 및 기아, 난민 등의 인도주의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아래 신청 링크 및 이메일(gckorea@globalcompact.kr)

문의: 임애화 선임연구원 02-749-2150

[\[참가신청\]](#)

[\[초청장 다운받기\]](#)

[\[원문보기\]](#)

2. K-SDGs 분야별 집중포럼 (7/3 - 7/4)

2018년 12월 국무회의에서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가 심의·확정되었습니다. K-SDGs는 초안 단계부터 192명의 민간이 참여해 2030년까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한 세부목표를 마련한 뒤, 90개 이상의 기관과 단체 등 이해관계자그룹이 국민토론을 거쳐 마련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도 그 동안 산업계를 대표하여 K-SDGs 수립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작업반에도 참여해왔습니다.

오는 7월 3일부터 양일간 K-SDGs의 각 세부목표, 지표, 선정과정 등에 대해 논의하는 <K-SDGs 분야별 집중포럼>이 개최됩니다. 산업계를 대표하여 K-SDGs의 사회·환경·경제·거버넌스 및 범분야 국제 등 이슈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K-SDGs 분야별 집중포럼

<K-SDGs 분야별 집중포럼>은 작년에 수립된 K-SDGs에 대해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먼저 '18년도 수립된 K-SDGs를 대상으로 각 목표들을 ①사회 ②환경 ③경제 ④거버넌스 및 범분야·국제 총 4가지 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세부목표, 지표, 그리고 선정과정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K-SDGs 수립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을 모시고, 작년의 경험과 전문성에 기초한 의견을 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속가능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소중한 의견들을 모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사개요

포럼명	K-SDGs 분야별 집중포럼 (분야별 선택 참여 가능)
일시	2019년 7월 3일(수) ~ 7월 4일(목)
장소	서울스퀘어 중회의실 베를린룸(3F) / 접수는 리셉션룸에서 진행
주관	환경부
문의	(주)브랜뷰 070-4531-0501
신청	회사별 선착순 50명 모집 시 신청 마감
신청기간	2019년 6월 28일(금)까지

■ 회차별 일시 및 주제 (포럼명은 추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회차별 시작 30분전부터 접수시작			
1차	7월 3일(수) 10시 - 12시	K-SDGs 사회분야 세부목표 및 지표 선정과정 리뷰	
2차	7월 3일(수) 14시 - 16시	K-SDGs 환경분야 세부목표 및 지표 선정과정 리뷰	
3차	7월 4일(목) 10시 - 12시	K-SDGs 경제분야 세부목표 및 지표 선정과정 리뷰	
4차	7월 4일(목) 14시 - 16시	K-SDGs 수립에서의 거버넌스, 범분야이슈, 지구총협력 등 이행기반 리뷰	

■ 진행 일정

* 1차(사회), 3차(경제)

시간	소요시간	내용
10:00~10:10	10'	개회식
10:10~10:30	20'	기조발제
10:30~11:50	80'	패널 토의 및 플로어 토의
11:50~12:00	10'	전체의견 종합 및 마무리

* 2차(환경), 4차(거버넌스, 범분야이슈, 지구총협력 등)

시간	소요시간	내용
14:00~14:10	10'	개회식
14:10~14:30	20'	기조발제
14:30~15:50	80'	패널 토의 및 플로어 토의
15:50~16:00	10'	전체의견 종합 및 마무리

■ 오시는 길



* 교통이 혼잡하니 대중교통을 이용 해주세요.

■ 대중교통

지하철 (서울역 8번과 9번출구 사이에 서울스퀘어 빌딩 지하 아케이드와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 1호선 서울역 8번출구
- 4호선 서울역 10번출구

버스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③정류소	● 1711, 7024, 7016
④정류소	● 503, 151, 152, 150, 507, 505, 751, 752, 750, 501, 506, 504, 750, 502, 500, 162, 149, 202, 421
⑤정류소	● 402, 401, 406, 604, 263, 408 ● 7011, 7013A, 7021, 7013B ● 9401
⑥정류소	● 503, 703 ● 7022, 7017, 262, 261, 201, 103, 163, 701, 704, 706, 603, 702서오, 702용두 ● 9703, 9710
⑦정류소	● 1711, 7016 ● 151, 152, 150, 501, 506, 504, 162, 500, 149, 502

● 1회용품이 제공되지 않으니 개인컵, 텀블러 등을 지참해주세요!

[참가신청]

[원문보기]

3. <대전·세종>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 (7/25)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각국의 CSR 법제화, E·S·G 정보 공시 강화, 사회적책임투자(SRI) 확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인권·반부패 법 강화 등의 추세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공기업·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및 공공조달에 있어 일자리창출, 윤리경영, 양성평등, 환경, 노동의 질 제고 등 사회적 가치 요소들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들이 UN Global Compact, ISO26000 등의 글로벌 가이드라인 참여 및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성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등 설명회는 글로벌 사회책임경영 최신 동향 및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비롯해 UNGC 및 한국협회 활동·혜택·가입 절차 등을 소개합니다. 관심 있는 대전세종 소재의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UNGC 회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후원: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장소: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7층 회의실 (701호)

일시: 2019년 7월 25(목) 14:00 - 17:00

대상: UNGC 회원사 및 관심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표 및 실무진

참가비: 무료

시 간		프 로 그 램
13:30 - 14:00	30'	등 록
14:00 - 14:05	5'	인 사 말 -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14:05 - 14:10	5'	UNGC 한국협회 소개 영상
14:10 - 14:45	35'	공기업·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 최현선, 명지대학교 교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14:45 - 15:10	25'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최신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
15:10 - 15:20	10'	휴 식
15:20 - 16:10	50'	대전·세종 소재 UNGC 우수 회원 지속가능경영(CSR)·사회적가치 추진 사례 - 노해룡, 한국철도공사 미래혁신실 차장 - 신흥섭, 한국수자원공사 경영혁신실 차장
16:10 - 16:30	20'	UNGC 가입 혜택, 절차 및 주요 정책 소개 - 임애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선임연구원
16:30 - 17:00	30'	질의응답 및 폐회

* 신 청: 아래 신청 링크 및 이메일을 통해 신청바랍니다.
 * 문 의: 임애화 선임연구원 02-749-2150
 * 홈페이지이메일: www.unglobalcompact.kr | gckorea@globalcompact.kr



[\[참가신청\]](#)
[\[초청장 다운받기\]](#)
[\[원문보기\]](#)

4. 제 1 기 UNGC CSR Academy 3 차 교육 결과 (6/14)



'제 1 기 CSR Academy'의 3 차 교육이 6 월 14 일(금)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SK 텔레콤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 교육의 주제는 '반부패'와 '비즈니스 리포팅(Business Reporting)'이었습니다. 더욱이 두번째 세션인 '비즈니스 리포팅' 교육이 오픈 세션으로 진행되어, 60 여명이 넘는 CSR 담당자 및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해당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5 월부터 두 달 간 6 번의 세션이 운영되었습니다. CSR 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본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CSR 이슈 내재화를 통해 역량이 더욱 강화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카데미 1 부 세션에서는 '반부패' 이슈가 다뤄졌습니다. 먼저 광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선임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반부패 법이 강화되고 있으며, 민간부문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조달 및 공급망 관리에 있어 반부패 실사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전사적인 반부패 경영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정민 BSI 영국왕립표준협회 Group Korea 심사원은 발표를 통해 국제 반부패 경영시스템 표준인 ISO37001 에 대해 소개하고, 구체적인 인증절차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한정민 심사원은 ISO37001의 등장 배경을 소개하며, “오늘날 단순한 기술 표준에 대한 요구를 넘어서 반부패, 윤리 경영에 대한 국제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모든 조직에 통용될 수 있는 국제 반부패 경영 기준인 ISO37001 취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부패 세션에서는 두 기업이 참여해 자사의 반부패 노력을 공유했습니다. 먼저 롯데쇼핑 컴플라이언스팀 김정배 책임은 “기업내 반부패 정책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활동이 사내규정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각 기업 대표 경영진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만큼 원활한 반부패 활동을 위해서는 실무자의 선제적인 활동이 경영진의 공감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기획팀 임정철 차장은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등 각종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기업내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부당지시, 사적지시, 인권존중, 소통 등 4대 테마를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행되었던 청렴 서약 캠페인과 직원청원제도는 참석한 여러 회원사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첫번째 세션 종료 후 제 1기 CSR 아카데미 수료증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CSR 아카데미 전체 6개 세션 중 4개 세션 이상 참석한 분들께는 수료증이 전달되었으며, 전체 6개 세션에 모두 참여하신 분들께는 수료증과 함께 소정의 상품이 함께 지급되었습니다.



이어 '비즈니스 리포팅'을 다루는 2부 세션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세션은 오픈 세션으로 CSR 아카데미 참석자 외 참석을 희망하는 약 40여명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첫번째 연사인 THE CSR 정세우 대표는 기업이 경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재무성과를 반드시 봐야 하는 시대로 변모했다고 밝히며, 국내기업의 경영전략과 국제 표준 및 투자기관이 요구하는 사항과의 연결성이 취약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데이터 성과지표의 정량화, △임팩트 측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 △지속가능경영의 수준 증가, △보고서 공시적용의 디지털화 대응, △UN SDGs 달성을 위한 전략 구상을 통해 전략과 목표에 기반한 성과관리를 한다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조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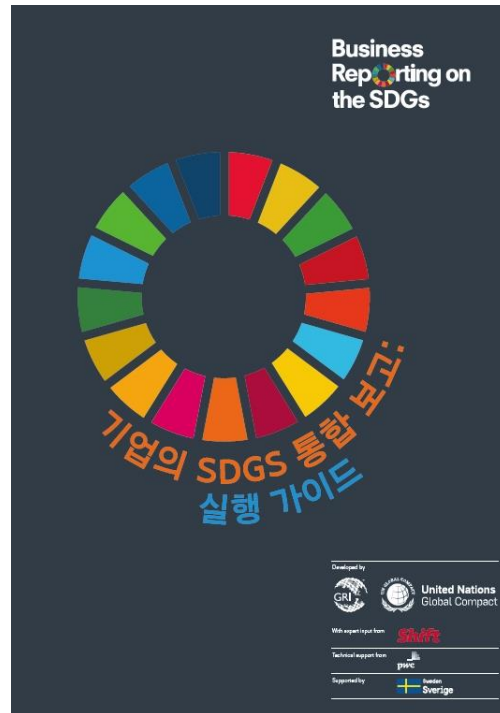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은 국제 표준을 활용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효율적인 작성방안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먼저 “기업의 운영 및 가치사슬 중 △사람과 환경에 대한 우선순위 리스크 △제품, 서비스, 투자를 통한 기업의 SDGS 기여 두가지 진입점을 고려해 사회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임팩트를 평가하고, 그 이슈에 관련된 기업의 세부목표를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 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에 가장 시급한 것은 데이터 관리로써 기업이 데이터를 어떻게 추적하고 관리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충분한 데이터 통합과 함께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KPI 에 반영할 지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김경민 과장의 COP/COE 작성 및 등재 방법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UNGC 홈페이지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여 광범위한 기업 지속가능성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라고 언급하며, “70 여개 이상의 국가에 지역협회가 운영되고 14,000 여개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UNGC 회원사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국가별·업종별·산업별 벤치마킹에 활용하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COP/COE 등재 시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사항과 등재 방법을 상세히 소개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제 1 기 CSR 아카데미가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회원 지속가능성 담당자를 위한 기초프로그램으로서 본 프로그램을 △글로벌 기준인 UNGC 10 대 원칙 및 최근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동향파악, △UNGC 본부/한국협회 활동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CSR 역량강화 기회확보, △UNGC 회원 기업 간의 우수 사례를 위한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제 2 기 CSR 아카데미는 올 9~10 월 중 개최될 예정입니다. CSR 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사에 지속가능성 내재화, 더 나아가 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무에 대해 토의하는 아카데미에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원문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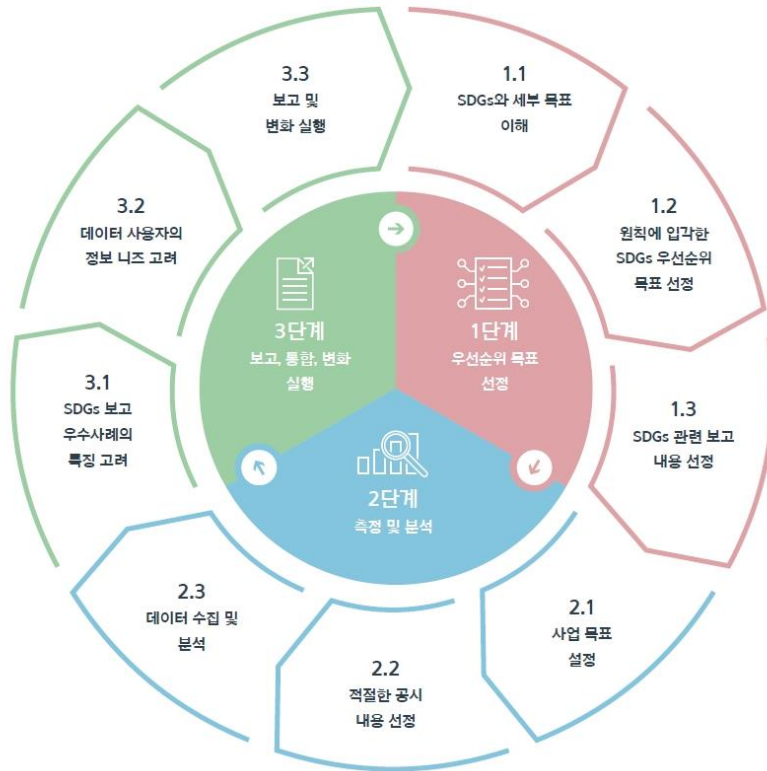
5.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기업의 SDGs 통합 보고: 실행 가이드' 국내 발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보고 및 공시를 위한 지침서 <기업의 SDGs 통합 보고: 실행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국내 회원사들의 위해 UNGC 본부에서 발간한 <Integra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to Corporate Reporting: A Practical Guide (2018)>를 기반으로 출간된 본 가이드는 UNGC 10 대 원칙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공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기업의 SDGs 공헌과 성과 보고에 관한 단계별 지침을 제공합니다.

본 가이드는 기업이 SDGs 목표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행동을 취하고 진행상황을 보고하는데 도움을 주는 '원칙에 입각한 우선순위 선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기업은 기존의 기업 책임 및 지속가능성 보고체계에 SDGs 를 포함하고,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및 SDGs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함께 모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SDG 목표 확인 및 우선순위 파악(define priority SDG targets), 측정 및 분석(measure and analyze), 이행사항의 보고, 내재화 및 적용(report, integrate and implement change)의 3 단계로 이뤄져 있는 본 가이드는 각 단계별 우수 기업 사례와 체크리스트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SDGs 보고 및 공시를 위한 3 단계

본 가이드는 새로운 기업 보고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업 보고 과정에 SDGs 를 포함하기 위한 3 단계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단계는 영향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기업이 행동을 취하고 공개할 SDGs 를 파악하는 과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 단계는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공시한 내용을 선택하며 성과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며, 3 단계는 SDGs 성과 보고와 개선에 대한 팁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본 가이드의 목표는 기업의 규모와 분야,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기업 고시를 담당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지만,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참여하는 담당자 및 전문가들과도 연관성을 갖습니다.

본 발간물에 대한 문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02-749-2149 / gckorea@globalcompact.kr)로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본부소식

1. UNGC, '글로벌 목표, 해양 기회 보고서(Global Goals, Ocean Opportunities)' 발간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 시민사회, 학계를 대표하는 300 명의 자문을 받아 'UNGC 해양 기회 보고서(Ocean Opportunity Report)'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한 해양 환경은 기업들의 장기적인 경영에 필요할 뿐 아니라 중요한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해양 환경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생물다양성, 해변에 위치한 지역사회, 지구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으며, 이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한 해양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는 해양 환경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천연 자원의 과잉 사용, 생태계 파괴, 해양 쓰레기 투기 또한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해양 관련 기업 뿐 아니라 기업 파트너 모두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민간부문의 혁신과 투자가 견고한 민관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함께한다면, 건강한 식재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자원, 안정적이고 저렴한 청정 에너지, 더욱 효율적인 저탄소 운송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류의 탄소 저감 노력에 필요한 해저광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채취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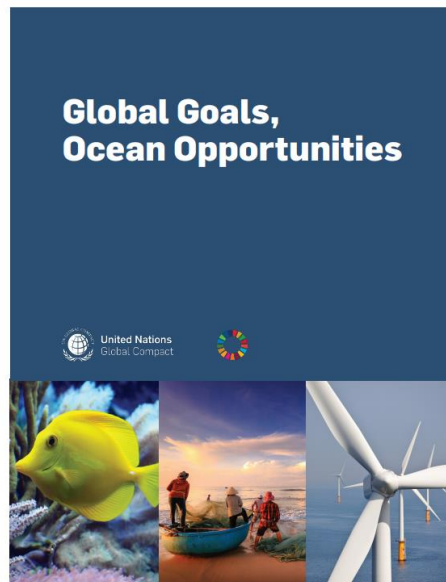
리세 킹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지속적인 국제 해양 관련 규제는 해양 관련 산업계가 SDGs 를 이행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행동플랫폼, '지속가능한 해양 비즈니스(Sustainable Ocean Business)'는 다양한 기업, 시민사회단체, 정부를 한데 모아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 대 원칙을 기준으로 기업이 해양관련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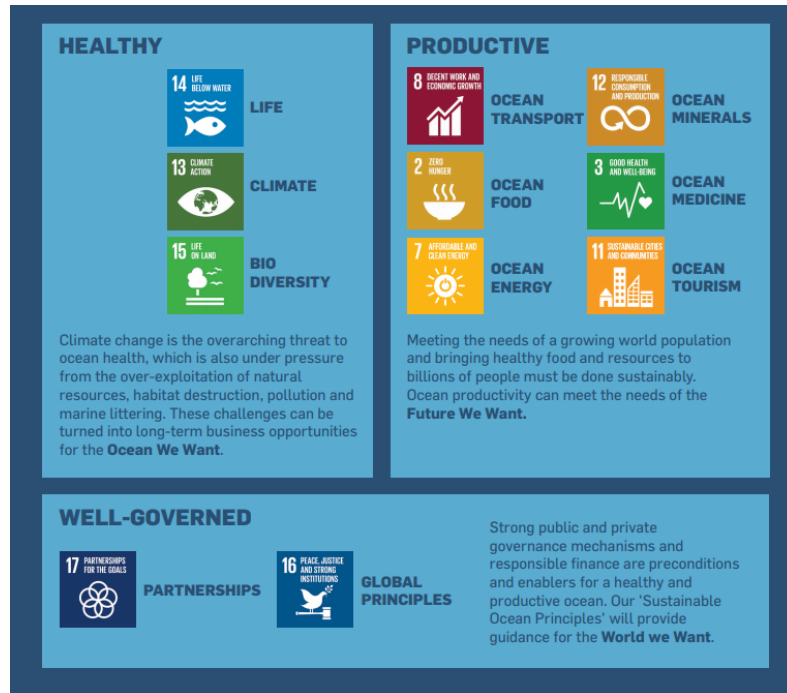
오늘로 국제선박박람회 ‘노르시핑 2019(Nor-Shipping 2019)’에서 리세 킹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과 에르나 솔베르그(Erna Solberg) 노르웨이 총리가 발표한 ‘글로벌 목표, 해양 기회 보고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와 DNV GL 의 협업으로 발간되었으며, 지속가능한 해양 비즈니스 행동플랫폼이 참여했습니다.

[원문보기]

“글로벌 목표, 해양 기회 보고서” (Global Goals, Ocean Opportunities)



“해양의 미래에 대한 열린 논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목표, 해양 기회 보고서’는 △건강한 바다(Ocean Health), △생산적인 해양 산업(Productive Ocean Industries), △거버넌스가 구축된 바다(Well-governed Ocean)의 3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생산성은 건강한 바다에 기인합니다. 기업은 해양 거버넌스를 통해 위협과 기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건강한 바다(Ocean Health)

기후변화는 바다의 가장 큰 위협 요소이며, 해양자원 남용, 생태계 파괴, 해양오염, 쓰레기 투기 등도 바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장기적 관점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생산적인 해양 산업(Productive Ocean Industries)

생산적인 해양산업은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자원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견고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간부문의 혁신과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송, 식량, 에너지, 의약, 광물 자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 거버넌스가 구축된 바다(Well-governed Ocean)

견고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책임 있는 재원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를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이때, 거버넌스는 영리사업으로 바다를 사용할 시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강제하며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을 포함합니다. 공공부문은 국내 및 국제법을 통해 규제를 적용하고, 민간부문은 산업계의 기준과 원칙, 실사과정, 조달 규칙을 만들어 거버넌스를 형성합니다.

[\[보고서 보기\]](#)

2. [Executive Update] 비즈니스 기회가 되는 해양 환경 보전: 기업의 긴급한 행동이 필요하다

본 기사는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이 기고한 글입니다.

해양은 실패의 위협과 성공의 보상이 가장 뚜렷한 나타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지구표면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바다는 육지와 해양의 모든 생물과 관련 있습니다. 동시에 무자비하기도 또, 관대하기도한 바다는 우리의 딜레마, 도전, 기회를 담고 있습니다.

해양 관련 기업들은 바다와 관련된 도전 과제들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최근 보호되고 지속가능하도록 보전된 해양이 주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해양 관련 산업계에서 넓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잘 관리된 해양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은 사람과 지구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건강한 해양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많은 해양 관련 기업들의 장기적 운영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양 솔루션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이끌며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양 산업계 종사자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리더들은 이미 이에 익숙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 해양과 관련된 도전 과제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들은 2030 아젠다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초 오슬로에서 저는 에르나 솔베르그(Erna Solberg) 노르웨이 총리, 빈센트 메리톤(Vincent Meriton) 세이셸 부통령과 함께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새롭게 발간한 'UNGC 해양 기회 보고서(Ocean Opportunity Report)'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 회의에는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사무총장, 마이클 롯지(Michael Lodge)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ies, ISA) 사무총장과 함께 20개국의 장관과 비즈니스 리더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해양 산업계가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해양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야심찬 논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속가능한 해양 비즈니스(Sustainable Ocean Business)' 행동플랫폼에서 발간한 이 리포트는 전세계의 300여명의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 미팅, 워크숍을 통해 발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기업, 정부, 시민 사회 중 어디에 속하든 모두 '바다를 구해 지구를 구할

기회를 만들자 (Save the ocean, and we have a chance to save the planet)'는 공통된 결론에 도달함을 발견했습니다.

해양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방식에 벗어나 강력한 행동을 취할 의지를 키워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해변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빠른 해양 환경 악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듯이, 이러한 해양 환경의 악화는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인간 활동에 의한 것입니다. 수 십년 간 우리는 해양을 지나치게 남용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행동을 바로잡을 차례입니다.

육지 활동에 의한 빗물의 해양 유출, 어류 남획, 그리고 막대한 양의 해양 쓰레기와 플라스틱 문제를 다루며 해양 지속가능성에 선도적인 기업들은 이미 해양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으로 2030 의제 이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인 기업의 수는 아직 부족하며, 지속가능한 해양을 보장할 수 있는 티핑 포인트를 달성할 만큼 많은 기업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수 세기동안 이루어졌던 기술, 과학, 혁신의 눈부신 발전은 사회를 오늘날과 같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함께 바다를 포함한 자연에 인간이 미치는 영향 또한 커졌습니다. 그러나 육지 및 해양 생태계에 대해 고려 하지 않으면 인류는 재앙의 벼랑 끝으로 몰릴 것이며 이미 수백만명이 기후변화, 어류 남획과 오염이 비일비재한 해양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을 회복하고 소외되었던 이들에게 정의를 찾아 주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책임입니다. 정부, 시민사회와 협업하는 글로벌 기업 커뮤니티는 해양 문제와 같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제 똑똑하고 책임감 있는 기업들이 해양 관련 문제 해결을 기회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추호의 의심이 없습니다.

2020 년을 앞두고 글로벌 목표 이행까지 10 년이 남은 가운데, 우리는 해양 지속가능성을 높여 해양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향후 수 세대에 걸쳐 인간이 지구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원문보기\]](#)

SDGs 소식

1.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목표 15 – 육상 생태계 보호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The Blueprint for SDGs Leadership)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기업 리더십 사례와 책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의 SDGs 이행을 위한 전략, 목표, 영향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제시한 행동 플랫폼(Action Platform) 중 하나입니다. 동 플랫폼은 LEAD 기업, 유엔 기구, 시민사회와의 협력 아래 개발되었습니다.



오늘날 생물다양성 감소, 토지 황폐화, 야생동물 불법거래 등의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육상 생태계와 담수 생태계는 큰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생산활동과 글로벌 공급망의 확대는 생태자원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는 사바나 평원, 대초원 지대, 열대우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새천년생태계평가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는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이 인간활동의 근간을 이룬다고 평가합니다. 잘 보존된 생태계는 단순히 인간활동에 필요한 식량, 식수, 천연 섬유, 의약품의 공급원일 뿐 아니라, 질병의 전파를 막고 공기와 물을 정화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기업은 먼저 오염, 토지, 육상 생태계에 관한 국내 환경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기업은 천연자원의 유한성과 생태자원의 공정한 사용에 주안을 둔 국제 협약인 생물다양성보존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 나고야 의정서(the Nagoya Protocol)를 바르게 인지하여야 하고, 두 협약의 핵심 의제를 바탕으로 책임있는 기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15, '육상 생태계 보호'를 위해 기업의 선도는 필수적입니다. 기업은 생태계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업활동 시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생태계 보존을 위해 적절한 재정적 지원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높은 수준의 생태계보호 정책을 도입하여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토양환경 복원,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여러 이해관계자와 파트너가 생태계 보호활동에 동참하여 생태계 보호활동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한편, 기업이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만큼, 신기술을 연구, 개발, 전파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이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기업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생태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며 발전시키는 데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현재 산업구조는 생태계의 가치를 저평가하며, 경제논리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업이 주도하여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BUSINESS ACTION 1

기업활동에 관련된 생태계 보호 정책 수립 및 시행

기업은 국내 환경관련 법률과 국제 환경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수기업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사 뿐 아니라 공급망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연계와 참여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기업들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 자체 검증절차를 마련하여 자사의 공급망을 단계적으로 분석하며, 자사의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공급책을 선정하여 기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수 사례

- 식품 유통회사 A 는 지속가능한 어업 계획(The Responsible Fishing Scheme)와 국제삼림협의회(the 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만을 취급합니다. A 사 는 자체 검증절차를 통해 상품의 공급원을 추적하며, 자사의 지속가능성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 화장품 회사 B 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삼림파괴를 하지 않은 공급자로부터만 화장품 원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B 사 는 최종적으로 2020 년까지 삼림파괴 없는 사업 시행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 대형 미디어 회사인 C 사 는 자사의 출판사업이 삼림파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습니다. C 사 는 '삼림파괴근절' 정책을 시행하여, 재생용지와 국제삼림협의회 기준에 부합하는 인쇄용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C 사 는 여러 제지업체가 삼림보호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BUSINESS ACTION 2

새로운 상품, 서비스, 사업 모델의 연구, 개발, 전파를 통한 생태계 파괴 방지

기업은 연구활동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전파하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 15 '육상 생태계 보호'를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상품, 서비스, 사업 정책은

기업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생태계 보호와 강화에 이바지합니다. 이러한 혁신은 원료의 추출과 원자재의 생산, 상품의 소비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전범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수 사례

- 제조업체 A는 직접 개발한 생분해성 상품과 포장재만을 사용합니다. 또한 동종업체가 이러한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 생명공학회사 B는 삼림파괴의 원인인 팜 유(油)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사업을 진행합니다.
- C 기업은 다수확 품종과 윤작법 개발해 토양 황폐화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IT 회사 D는 소규모 농가가 공급자와의 원활한 연계와 교류를 통해 환경파괴 없이 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BUSINESS ACTION 3

생태계 인식 제고, 보호,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

금융업계부터 제조업계까지, 기업의 재정적 지원은 산업부문을 막론하고 생태계 보호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옵니다. 기업의 영향력과 자본력은 생태계 보호, 재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주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가 생태계의 중요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재정 부족을 겪던 지역이나 산업군에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생태계 보호활동도 가능케 합니다.

우수 사례

- 의류업체 A는 자연 서식지 보호에 힘쓰는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벤처펀드를 설립하였습니다.



BUSINESS ACTION 4

천연 자원 보호를 위한 해결책 제시

기업은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서 천연자원의 가치를 고려하고, 다른 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생태계 보호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우수기업은 정부, 공급망,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자사의 해결책이 원만히 시행되도록 하고, 공급망 내 다른 기업들이 환경적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자사의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공유합니다.

우수 사례

- 유틸리티 기업 A는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천연 자원 보호를 장려하기 위해 평가, 회계, 전략에 천연 자원 회계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 건설회사 B는 한 지역의 자연 서식지에 불가피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와 정부 관계자와 상의 후 다른 지역에 동일한 크기의 자연 서식지를 조성하는 생물다양성 상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광회사 C는 숲이나 하천 같은 천연 자원을 관리하는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 보호 구역 주변의 빈민지역 주민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불법 사냥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2. [SDGs 솔루션] 100% 식물 기반 음료 포장재

식물을 원료로 한 판지와 플라스틱으로만 제조된 테트라팩(Tetra Pak)의 바이오 기반 테트라렉스 포장용기(Tetra Rex carton)는 100% 재생가능하고 재활용 가능한 음료용 포장재입니다.

테트라팩은 재생 가능한 포장재로 만든 식물성 음료 용기를 생산합니다. 바이오-폴리머 생산업체인 브라스캠(Braskem)과 공동으로 개발한 테트라렉스 포장용기는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로써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판지와 혁신적인 바이오 기반의 플라스틱을 사용합니다. 포장용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판지는 국제삼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 농장에서 생산되고 라미네이트 밀봉 필름에 사용되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및 뚜껑에 사용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석유가 아닌 사탕수수로부터 추출됩니다.



테트라팩에 따르면, 기업 표준 포장용기를 사용 중인 고객은 생산장비 교체 없이도 환경 친화적인 테트라렉스 모델로 원활한 전환이 가능합니다.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낙농업체인 발리오(Valio), 아를라(Arla)와의 시험생산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테트라팩은 테트라렉스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Why you should care

포장에 대한 전세계적인 수요는 2020년까지 연 3.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포장재, 특히 플라스틱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테트라팩은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플라스틱을 재생 가능한 형태의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고 국제삼림관리협의회 인증을 받은 판지를 사용하여 기존 음료 용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혁신과 인프라 구축

테트라렉스의 책임있는 바이오 재료는 기존 플라스틱에 재생 가능하고 재활용 가능한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포장 산업이 보다 지속가능한 원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선도하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포장용기를 만드는 데 있어 책임있는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바이오 기반의 용기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에서 의식적인 환경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기후행동

사탕수수가 성장하는 동안 분리된 이산화탄소는 생산 과정에서 CO2 배출량을 상쇄시켜 석유 기반의 대체재보다 전반적인 배출량을 낮춥니다.



육지생태계 보존

국제삼림관리협의회 인증은 포장용 판지를 제조하는 농장이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원문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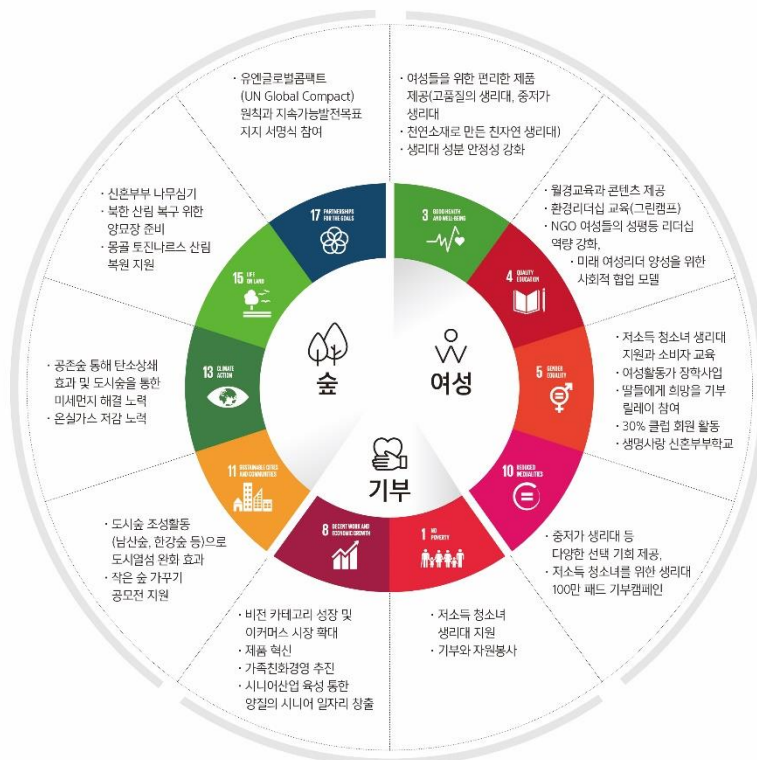
3. [Goal 15, 11, 13, 5]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유한킴벌리

유한킴벌리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유한킴벌리는 1970 년에 창립 되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생활위생용품업체중 하나입니다. 유한킴벌리는 1984 년부터 숲·환경보호 캠페인(우리강산푸르게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2007 년에 유엔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한 이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원칙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미션이자 비전인 '더 나은 생활을 향한 믿음'을 수행함과 함께 SDGs 와 연계하여 우리사회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UN SDGs 대응 활동

SDGs 전략 및 사례

유한킴벌리와 SDGs 성과 확산_ 전담조직 운영과 최고경영자의 사례 공유 통한 확산 실천



유한킴벌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숲·환경보호와 여성들의 리더십과 인권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전담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직 내에는 사회책임활동을 수행하는 사회협력(CSR)부서와 함께 커뮤니케이션과 홍보, 고객지원, 스마트워크서비스를 하는 부서를 두어 관련 내용을 실행함으로써 더 나은 기업과 사회를 구축하는 데 일조 하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중요시 합니다. 유한킴벌리 최고경영자(CEO 최규복)는 2017 년에 SDGs 서약에 참여하고, 컨퍼런스에 나가 SDGs 의 실천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투명한 제품 정보 제공,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협력회사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펀드 지원, 상생 아카데미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자원봉사를 격려함으로써 사회책임 내재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숲 _ 기후 변화 대응 위해 나무 심기와 숲 가꾸기 실행 (1984~현재)

- 유한킴벌리는 지속가능한 숲과 환경 보호를 위해 숲 환경보호 캠페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를 진행하면서 지난 30 년동안 한국에 5 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었습니다. 2018 년에도 도시숲 가꾸기, 국경을 넘어선 몽골 숲 가꾸기, 미래 북한숲 조성을 위한 양묘장 운영, 숲과 사람의 공존을 위한 모델숲 조성(탄소상쇄림 조성 통한 공존숲 조성), 신혼부부들을 위한 나무 심기, 시니어들을 위한 산촌교육과정 등을 운영했습니다. 좀 더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속가능한 도시숲 조성 - 한국은 현재 미세먼지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숲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도권의 대표적인 숲, 강, 공원인 남산과 한강 그리고 서울숲 등 3 개 지역에서 시민단체와 시정부와 공동으로 숲 가꾸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 년간(2016~2018) 독섬 한강공원에 나무 3,149 그루 및 초화류 3,830 본을 심었고, 총 6,295m²의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2018 년 조성공간은 약 90 톤의 탄소상쇄 효과(2016~2018 누적 탄소상쇄 효과 약 240 톤)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몽골 숲 가꾸기 - 유한김벌리는 몽골의 숲 복구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형산불로 산림이 훼손된 몽골 토진나르스 지역에 약 1 천만 그루(2003-2014 년, 3,250ha 면적)의 나무를 심어 환경개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이후 몽골 정부와 지역주민들과 3 개년 마다 협약(2015-2017, 2018-2020)을 통해 기존 조림지의 숲을 가꾸어 국경을 넘어선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8 년에는 조림지에 10 여 미터의 전망대를 세워서 몽골 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생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_ 기후변화 대응강화 위한 적극적 활동

- 유한김벌리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환경경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량, 친환경 원료의 도입 및 적용, 재활용 가능성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제품 구매, 생산에서부터 소비와 폐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고려함으로써 더 건강한 지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한김벌리는 친환경정책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8 년 9 월에는 미래의 환경경영 3.0 시대를 열기 위해 별도의 환경경영추진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경영진뿐만이 아니라 환경경영에 대한 유한김벌리 직원들의 지지도와 신뢰도는 높은 편입니다. 소비자에게 보다 친환경적인 제품 사용 기회를 제공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녹색구매, 친환경 인증, 폐기물 재활용, 녹색물류 등 전과정의 환경영향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원 인식조사_2019년 1월, 430명 참여]

- 우리회사는 환경친화적 기업이다. 90.6%
- 나의 업무는 환경경영과 관련이 있다. 67.4%

여성_ 한국여성들의 리더십과 성평등, 인권 지원



- 유한킴벌리의 주요 제품중의 하나는 생리대입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에 생리대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도록 위생 문화 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생리라는 말조차 터부시된 사회적 금기를 극복하고, 한국여성들의 생리대 사용을 일상화 시키는데 공헌해왔습니다. 또한 1972년부터 지난 47년간 여성들의 생애에서 겪는 생리적 현상인 월경을 이해하고, 당당해지도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교육(누적 1,500만명)을 지속해왔습니다. 2017년 11월부터는 온라인으로 검증된 생리건강 콘텐츠를 제공하는 오픈형의 생리정보백과사전(<http://onperiod.co.kr>)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기존 사이트를 혁신해서 청소년들과 보건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여성건강, 역량향상, 월경과 양성평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유한킴벌리는 미래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소중함과 숲을 사랑하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숲체험 캠프를 1988년부터 매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개최한 지 30주년을 맞이했으며, 이 기간동안 총 4,487명의 여고생이 환경교육을 받았습니다.

- 미래여성리더 양성을 위하여 2007년부터 NGO 여성활동가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한킴벌리와, NGO, 대학의 3자 협업모델로 운영하여 우리 사회의 젠더 관점을 재정립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 일부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2016년부터 생리대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도 빈곤 해소 및 인권보호를 위해 연간 생리대 1백만패드를 기부했습니다.

- 유한킴벌리 사원들은 매년 봄마다 시민단체인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딸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기부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축된 기부금은 여성들의 성평등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About These SDGs Goals

SDGs 세부목표 15.2는

지속가능한 숲 관리 이행과 삼림파괴의 중단, 황폐화된 삼림 복원 및 조림과 재식림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스톡홀름선언(1972)에서 삼림 화재, 해충, 병해를 각각 다룰 것을 명시한 데에 이어, 세계3대 환경협약인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에서는 모두 삼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UNCBD(2010)에서 발족한 아이치 목표 7번에서는 농업, 어업, 삼림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2020년까지 추진하고, UNCCD에서는 삼림 관리를 포함한 사막화, 토지황폐화, 가뭄(Desertification, Land-Degradation and Drought, DLDD) 프로그램을 국가별 행동계획에 통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UNFCCC 당사국총회(COP11, 2005)에서는 삼림파괴와 삼림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프로그램(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과 국가별 조림 및 재식림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조림과 재식림에 관한 기준치와 모니터링 방법이 승인된 이래로 52개의 프로젝트만 시행되어, UNFCCC에서는 2013년에 조림과 재식림 확대를 위한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동 프로그램과 목표를 함께 추진합니다.



SDGs 세부목표 11.7은

공공 녹지 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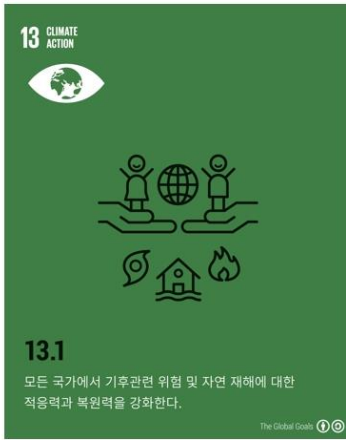


유엔 인간정주계획(UN-HABITAT)은 여성, 아동, 미등록 이주자와 같은 집단은 폭력 및 통제에 의해 공공 장소로부터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유지 및 공공 장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21세기형 도시의 특징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연례보고서(2013)를 통해 녹지 공간이 도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 장소에 대한 접근이 삶의 질 개선 뿐 아니라 시민 권한 강화의 첫걸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은 결의안(2011)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면 포용적인 공공 장소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모든 시민, 특히 여성, 여아 및 기타 취약 집단을 위한 도시 안전을 공공 장소 사용 관련 법률에 통합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SDGs 세부목표 13.1은

기후관련 위험 및 자연 재해에 대한 모든 국가의 복원력 및 적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기후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국제기상기구(IMO)의 국제기상학 연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가 스톡홀름 선언(1972)에서 언급된 이후, 유엔 총회(1989)에서는 자연재해감소를 위한 10년(1990-2000)을 지정하여, 주요 목표 달성에 대한 연례 보고와 자연재해 감소를 위한 10개년 프레임워크 도입을 명시하였습니다. 유엔환경개발회의(1992)에서 채택한 의제21에서 자연재해의 도시 생산성 저하, 경제활동의 파괴, 인구감소를 인지하고 세계자연재해감소 회의(1994)에서는 2000년 이후의 자연재해 및 위험감소 전략 수립을 위해 더 안전한 세계를 위한 요코하마 전략 및 행동계획을 선언했습니다. 효고 행동 프레임워크(2005-2015)에 이어 채택한 샌다이 방재 프레임워크(2016-2030)를 통해 SDGs에서도 재해경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DGs 세부목표 5.1은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모든 곳에서 철폐를 목표로 합니다.



여성의 권리는 1948년 유엔세계인권선언(UDHR) 제2조에 처음 명시된 것을 시작으로 1967년 유엔 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선언 제1조는 여성에 대한 차별,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권리 부인 및 제한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하며 인간의 존엄성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81년 발효되었습니다. 동 회의 결의안에서는 성별에 기반한 차별의 특징과 의미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선언을 SDGs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UNGC 회원뉴스

1. KB국민은행, 여성리더 20% 이상 확대키로

여가부·KB국민은행, 여성리더 20% 이상 확대키로

2019-06-07 07:33

- 여가부, KB국민은행·KB증권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협약 체결
- 부정장급 이상 여성 비율 현행 10%→2022년까지 20% 확대 목표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KB국민은행·KB증권이여성 고위직 비율을 2022년까지 2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KB국민은행·KB증권은 7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에서 직장 내 성차별 금지, 여성 중간관리자 확대, 일·생활 균형 지속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한다한다고 밝혔다.

- KB국민은행과 KB증권이 여성 고위직 비율을 2022년까지 20% 이상 확대하기로 했음.
- 여성가족부와 KB국민은행·KB증권은 7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에서 직장 내 성차별 금지, 여성 중간관리자 확대, 일·생활 균형 지속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함
- 여가부는 지난 3월 경제단체들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기업 내 성별균형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자율협약을 이어가고 있음.
- KB금융그룹은 여성 인재 육성, 일·생활 균형지원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국내 기업 최초로 '2019 블룸버그 성평등 지수(GEI)'에 편입된 바 있음. 본부 부서 여성 팀장을 최소 1명 이상, 전체 팀장급에 여성을 30% 이상 임명해 주요 보직, 관리직 성별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함.
- 진선미 장관은 "기업 내 성별 다양성을 높이는 것은 결국 성평등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다양한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금융기업이 동참해 우리사회 전반에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음.

[헤럴드경제](#)

2. 한국남동발전, 기후변화 국제 컨퍼런스에서 잇단 성과

한국남동발전, 기후변화 국제 컨퍼런스에서 잇단 성과

국제무대에서 발전소 기후변화 대응 우수사례 홍보

최종수정 2019.06.08 11:54:33 | 김동수 기자(=진주) | kdsu21@naver.com

한국남동발전이 기후변화 관련 세계최대 규모 국제 컨퍼런스인 I4C에 참석해 잇단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남동발전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I4C에 참석해 국제배출권거래협회와 발전부문 국내 최초로 글로벌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글로벌 탄소시장의 최대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배출권거래협회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스위스 제네바 소재 비영리단체이다.

- 한국남동발전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I4C에 참석해 국제배출권거래협회와 발전부문 국내 최초로 글로벌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힘.
- 남동발전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0년 이후 개방될 국제탄소시장 연계에 대비 글로벌 협력관계 구축은 물론 국제탄소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번 행사에서 남동발전은 또 영국 카본트러스트사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수자원사용절감 노력을 인정받아 글로벌탄소경영인증 탄소 및 수자원부문 동시인증도 획득했음.
- 남동발전은 이번 I4C 기간동안 국내 발전부문 최초로 홍보부스 설치 및 한·중·일 배출권거래 전략 패널토의에 참가해 남동발전의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국내최초 국민협력 온실가스 감축사업인 탄소펀드 소개 및 2030 신재생에너지 로드맵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우수사례를 홍보했음.

[프레시안](#)

3. 인천공항공사, '2019 한국윤리경영대상' 수상

인천공항공사, '2019 한국윤리경영대상' 수상

파이낸셜뉴스 | 입력 : 2019.06.11 15:48 | 수정 : 2019.06.11 15:48



| 인천공항공사, 매년 6월 '윤리의 달' 지정...청렴 및 윤리문화 확산



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8일 경희대학교 오비스홀에서 열린 2019년 한국윤리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2019 한국윤리경영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8일 경희대학교 오비스홀에서 열린 2019년 한국윤리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2019 한국윤리경영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힘.
- 인천공항공사는 체계적인 윤리경영 시스템과 윤리경영에 대한 CEO의 의지 및 전사적인 윤리경영 실천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대상을 수상하게 됐으며 한국윤리경영학회 백기복 심사위원장은 시상식에서 발표한 공적서에서 인천공항 최고경영진의 윤리적인 리더십과 실천사례가 다른 기관의 귀감이 된다고 강조했다.
-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부터 매년 6월을 '윤리의 달'로 지정, 조직 내 윤리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고, 올해는 지난 3일 공사 전임직원이 함께 즐기는 윤리퀴즈 이벤트를 시행했으며, 10일엔 조창훈 국민권익위 청렴전문강사를 초빙해 윤리경영과 준법정신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음.
- 구분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윤리경영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이자 세계 최고의 공항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윤리경영을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삼고, 공사 임직원과 인천공항 내 7만 여 상주직원이 하나 되는 청렴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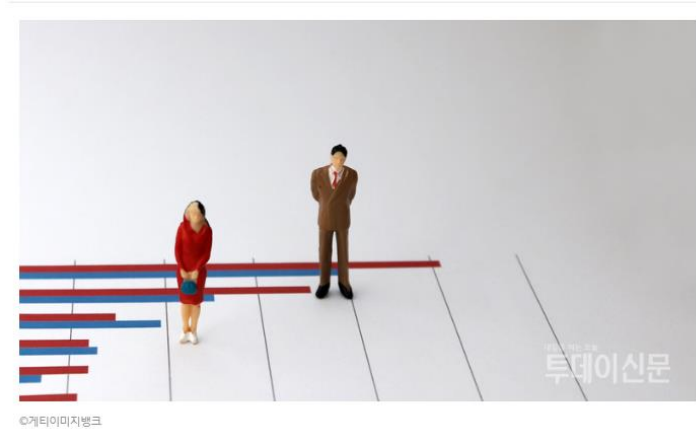
[파이낸셜뉴스](#)

CSR 뉴스

1. 남성 10명 중 4명 “여성 임금수준 불평등...취업·승진에 불리”

남성 10명 중 4명 “여성 임금수준 불평등...취업·승진에 불리”

김효민 기자 | 승인 2019.06.11 16:22



- 11 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에 따르면 만 19 세 이상~75 세 미만 성인 남성 1967 명과 여성 1906 명 등 총 3873 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성평등 정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남성 44%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임금과 취업 및 승진 등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대우가 가장 불평등하다고 인식한 분야는 임금수준이었으며, '회사에서의 취업 및 승진'에 대해 성평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남성 비율은 40.28%(매우 불평등 4.41%, 대체로 불평등 35.87%)로 조사됐음.
- 반면 가정과 회사 내에서의 역할분담은 평등하다는 인식이 비교적 높았는데, 특히 '가정 내 역할' 항목에서는 49.8%의 남성이 평등하다(매우 평등 6.5%, 대체로 평등 43.3%)고 답함.
- 연구진은 최근 한국 사회의 두드러진 갈등이 우리 사회의 자원 분배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했다고 보고, 본 연구가 밝히는 계층갈등, 젠더갈등, 세대갈등은 가치관 갈등과 이해관계 갈등의 복합적 지점에 있으며, 이를 위한 갈등 해결의 프로세스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부 역할의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투데이신문](#)

2. 역대 최저금리에 15억불 외평채 발행...첫 정부발행 지속가능채권

역대 최저금리에 15억불 외평채 발행...첫 정부발행 지속가능채권(종합)

송고시간 | 2019-06-13 08:25



"투자자 주문 60억달러 몰려 5억달러 추가 발행...가산금리 역대 최저"
정부 "미중 무역갈등 속 한국경제에 대한 굳건한 신뢰 재확인"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15억 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금리 수준으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 정부가 15 억 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금리 수준으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13 일 밝힘.
-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1 시 30 분 미국 뉴욕에서 만기 5 년짜리 녹색 및 지속가능(Green and Sustainability) 채권과 만기 10 년 일반 채권 두 종류를 성공적으로 발행했음
- 녹색 및 지속가능 채권은 사상 첫 발행으로 이 채권은 환경과 사회적 지속 가능 분야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이며 이번 외평채 발행은 올해 4 월 만기 상환한 15 억 달러에 대한 차환이 목적임.
- 기재부는 이번 외평채 발행이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상황에서 해외투자자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으며 이와 함께 녹색 및 지속가능 채권 발행을 통해 혁신적 포용성장 등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을 높였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본 콘텐츠는 최근 CSR 동향 기사를 발췌한 글로 협회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6 월 1 일부터 6 월 17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없습니다.

2. COP/COE 제출회원

6 월 1 일부터 6 월 17 일까지 6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한전 KDN
- CJ 제일제당
- 한국품질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전자인증
- NS 쇼핑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 년도 UNGC 회원 연회비 청구 안내



1. Select Participant or Signatory

● SIGNATORY	● PARTICIPANT	● PARTICIPANT + ACTION PLATFORMS & LEAD ELIGIBILITY
<p>Signatories actively engage at their national or regional level with the UN Global Compact. Signatories receiv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Full access to their country-specific resources and activities. 2. Basic access to the UN Global Compact digital platform and tools. 3. Opportunities to engage with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 in their country or region. 	<p>Participants actively engage at the global level with the UN Global Compact. Participants receiv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ll access to global resources and activities. • Full access to their country-specific resources and activities. • Full access to the UN Global Compact digital platform and tools. • Opportunities to fully engage with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 in their country or region. 	<p>Participants additionally have the opportunity to engage in Action Platforms (learn more) and thereby gain eligibility to be a UN Global Compact LEAD company.</p> <p>Use this form to select the Action Platforms you would like to engage in during 2018.</p> <p>Companies that engage in two or more Action Platforms, pass an integrity screen and submit an Advanced COP are eligible to be recognized as LEAD.</p> <p>Please note, Action Platform annual contributions are in addition to the Participant tier annual contribution.</p>

2019 년도 연회비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신(新) 연회비 정책을 기반으로 청구될 예정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UNGC 2030 비전 및 2020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자발적 기여에서 의무로 바뀌는 신(新) 연회비 정책을 도입하고, 본부와 한국협회 간의 재정 배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UNGC 의 모든 영리 회원사는 참여 정도에 따라 참여레벨(Participant 또는 Signatory) 선택 및 매출액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추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9 년 1/4, 2/4 분기 청구 대상 회원]

가. UNGC 본부 및 한국협회 참여회원 (1/4 분기 및 2/4 분기 납부대상)

- 참여레벨 (Participant / 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 연매출 500 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나. UNGC 본부 참여회원 (한국협회 미참여 회원)

- 참여레벨 (Participant/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1/4 분기, 2/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KEB 하나은행, 두산중공업, 한국타이어, KDB 산업은행, 포스코, 경기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 유한킴벌리, 한국중부발전, 비씨카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BGF 리테일, 이화다이아몬드공업, 테크로스, JB 금융지주, 유니베라, 카라반이에스, 삼익전자, 한국전자인증, 제씨콤, 리인터내셔널, 마콜 컨설팅 그룹, 동명전기, 바이오제네틱스, 제니컴, ATUS, 디씨티 오토, 메씨인터내셔널, 비엘에이치아쿠아텍, 대신직물, 엑스트라마일커뮤니케이션즈,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미술등록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카이스트 경영대학, 신한대학교, 늘푸른직업재활원, 환경실천연합회, 환경재단, 경실련, 메디피스, 한국도자재단, 열반유스아카데미, 한국품질재단, 밀알심장재단,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당감종합사회복지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연구재단, 코이카, 구미시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천안시시설관리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한국벤처투자, 한국환경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수목원관리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안양시시설관리공단 극지연구소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레벨 선택을 안내 받은 매출액 500억 이상 기업은

참여레벨 (Participant 또는 Signatory)을 조속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레벨 선택 관련 기한 변경 또는 의견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